도선사 “청담 대종사 유훈 이어 문중 화합·발전” 다짐

5월 31일 ‘사리 봉안법회’ 봉행
1974년 이후 50여 년 만에 보수
노후화 · 주변 지반 침하로 불가피
인묵 스님 집전…사리 · 유물 봉안
6월 사리탑 · 8월 주변 불사 완료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도선사가 5월 31일 경내에서 ‘청담 대종사 사리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연에 봉안된 사리함이 청담기념관에서 대웅전으로 향하고 있다.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있는 모습.


청담 대종사 사리.


청담 대종사 사리를 사리탑에 봉안하고 있다.


사리를 모신 연이 사리탑지로 이운되고 있다.

호국참회기도도량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가 중창조인 청담 대종사의 사리를 다시 모시는 사리탑 재건 불사를 원만 회향했다. 부식과 균열 등으로 훼손된 기존 사리탑을 해체·보수해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청담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기리며 문중 화합과 한국불교 중흥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부대중의 염원이 담겼다.

도선사는 5월 31일 경내에서 ‘청담 대종사 사리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도선사문도회 문장 불휴당 법화 대종사와 주지 태원 스님 등 문도회 스님들과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김학규 도선사 신도회장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안법회는 청담기념관에서 문도회 스님들이 마지막으로 사리를 친견하고 내함, 외함, 수정함에 납입하는 의식으로 시작됐다. 사리함은 연(輦)에 봉안돼 대웅전으로 옮겨졌고, 부처님 전에 예경을 올린 후 도선사 신도들이 꽃비로 장엄한 길을 따라 사리탑지로 이운됐다. 사리탑지에서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헌향·헌다, 경과보고, 고불문, 조사, 사리 봉안 의식 등의 순으로 이운 법요식이 이어졌다.

이번 청담 대종사 사리탑·탑비·석상 보수 불사는 1974년 대종사 입적 3주기를 맞아 사리탑이 건립된 후 50여 년 만에 이뤄졌다. 오랜 세월 풍화로 석물 노후와 주변 지반 침하로 안전상의 우려가 커지면서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선사는 2023년 3월 20일 호국참회원 2층 교육관에서 열린 문중 회의에서 ‘사리탑 주변 보수정비 관련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배수로 설치 및 석조물 해체·재설치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후 2024년 4월 1일 문중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리탑을 해체하고 사리를 청담기념관으로 이운하며 본격적인 사리탑 재조성에 들어갔다.

청담기념관에 봉안된 사리는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담 대종사 사리친견 및 사리탑 특별전’을 통해 대중에 공개됐으며, 이날 봉안법회를 통해 다시 탑에 모셔졌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청담 대종사 사리탑 중수불사 총도감)은 고불문을 통해 청담 대종사의 유훈을 받들어 문중 화합과 발전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태원 스님은 “오늘 도선사 문도와 대중은 청담 대종사가 열반에 든 지 반세기를 지나 사리탑을 보수하고 주변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유훈을 봉대하고 각인하고자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대종사가 불교 근대화 지표로 내세웠던 역경과 도제 양성, 포교는 현재에도 본받아 이룩해야 할 과제들로 후학들이 가슴 깊이 새기며 전법에 매진해야 할 사명을 깨우쳐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원 스님은 “저희 마음속에 나태함과 퇴굴심이 일어나거든 채찍과 불호령을 내려 다시 정진해 나아가는 금강역사의 힘을 주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비굴해지거든 철퇴를 내려 스스로 과감하게 버리고 영롱한 빛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며 제불제보살님 전에 서원했다.

도선사문도회 문장 법화 스님은 “새로 모시는 대종사의 사리탑은 단순한 석물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스승님의 자취이자, 우리 후학들이 걸어야 할 수행과 전법의 길을 가리키는 등불”이라며 “오늘 이 법회가 대종사의 큰 뜻과 원력을 다시 되새기는 결사의 자리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우리 문도 모두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하고,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 아래 화합할 것을 다짐하는 법석이 된다면 그보다 값진 것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의 회향이 청담문도 모두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사리 봉안 의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거행됐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주지 태원 스님은 새롭게 조성된 사리탑에 청담 대종사의 사리를 봉안하고 한글 금강경, 향합, 명판, 지석, 은수저, 은젓가락, 은비녀 등을 함께 봉납했다. 사리 이운법회를 맞아 제작한 대종사 가사는 향후 석상 조성 시 봉납할 예정이다. 기존 가사는 수장고에 보관한다. 봉안법회는 사리함 위에 덮개석을 올리는 것으로 회향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불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김학규 도선사 신도회장은 “사부대중의 정성과 마음이 모여 무사히 봉안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도선사와 한국불교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일순 신도회 부회장도 “어릴 때 청담 대종사님을 뵌 기억이 나 그리운 마음에 눈물이 났다”며 “이 불사가 도선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도선사는 6월 중 사리탑 조성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석축 및 배수시설, 공덕비 조성 등 주변 불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926년 출가한 청담 대종사(1902~1971)는 조선불교학인대회 발기를 위해 전국 강원을 순방하며 학인대회를 개최하고 ‘조선불교학인연맹’을 결성했다. 1947년에는 성철·자운·향곡 스님 등과 봉암사 결사를 이끌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종회의장, 통합종단 2대 종정, 장로원장, 해인사 주지, 도선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1970년 총무원장에 재추대돼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했다. 1971년 11월 15일, 세수 70세·법랍 45세로 원적에 들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인터뷰

“14년 전 약속 지켜 감개무량…도선사 화합 기원”

금강경 기도로 역경 이겨
“사격 진일보 계기” 발원



“청담 대종사 사리탑·탑비·석상 보수불사는 14년 전 도선사에 처음 왔을 때 스스로 다짐한 일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사진〉이 5월 31일 청담 대종사 사리 봉안법회를 회향한 직후 경내 호국참회원 2층 접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불사 과정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처음 도선사에 발을 디뎠을 때, 청담 대종사 사리탑의 모습이 너무도 피폐했다”며 “배수로는 좁아 여름이면 계단 위로 물이 넘치고, 주변은 낡고 파손돼 부끄럽고도 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날, 스님은 마음속으로 하나의 서원을 세웠다. 10년 안에 도선사 주지로 돌아와 사리탑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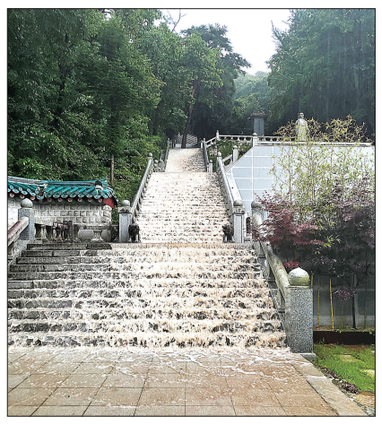
2021년 9월, 다짐은 현실이 됐다. 태원 스님이 도선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사리탑 불사가 추진됐다. 불사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태원 스님은 ‘금강경 기도’로 이를 헤쳐나갔다. 스님은 “부임 직후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찾아가 불사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때 스님께서 ‘오해도 많을 텐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려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주저 없이 ‘금강경 기도’로 극복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 말처럼, 태원 스님은 부임 이후 매달 21일간 금강경 기도에 정진해 왔고, 지금까지 31회를 회향했다. 오는 8월 21일 총 33회로 결사의 대단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매회 무려 500명의 불자가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3년 넘게 이어진 기도에 수천 명의 불자가 함께한 셈이다.

“정말 힘들고,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해 준 불자님들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사는 저 혼자의 힘이 아닌, 도선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일군 결실입니다.”

이번 사리탑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로 재건됐다. 단, 탑의 비례에 맞춰 사자상은 크기를 조정했다. 태원 스님은 “이번 불사가 도선사 사격을 높이고, 사부대중이 화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2022년 8월 촬영된 계단 위로 물이 넘치고 있는 모습. 사진=도선사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